



미국의 외교대전략과 대중(對中) 전략

2020. 8. 14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EAI 국가안보센터장



Table of Contents


- 탈냉전 30년과 미국 외교정책의 성격
- 패권국으로서 미국, 패권이론
- 미국의 대중 전략과 미중 관계
- 코로나 사태의 미국 외교정책
- 다가오는 미 대선
- 미국 차기행정부와 한반도



미국의 외교전략: 30년 간(1991-2020)의 단극 체제와 세 번의 위기

- 퍼즐의 시작.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우리가 알던 미국?
- Richard Haas. Present at the Disruption: How Trump Unmade U.S. Foreign Policy.
- 트럼프의 재선: From Disruption to Destruction

- 2001. 9.11 테러
- 2008. 경제위기
- 2020. 코로나 사태
- 그리고 미중 전략 갈등




미국의 외교전략: 30년 간(1991-2020)의 단극 체제와 세 번의 위기

- 국제정치학, 국제정치학이론에 대한 반성, The End of IR Theory? Or Rebuilding IR Theory?
- 우리는 탈냉전 시대에 살고 있는가? 종언, post의 시대
- 과거준거적 개념으로서 **탈냉전** vs, 현재와 미래적 개념으로서 **탈식민, 탈패권, 탈자본주의, 탈근대, 탈인간**
- 조직원리의 복합적 구성부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국가 대 국가, 인간 대 국가, 인간 대 자연
- 현재의 복합조직원리 이행 상황




단극 패권 시대의 종말?

- Most Millennials were between the ages of 5 and 20 when the 9/11 terrorist attacks shook the nation, and many were old enough to comprehe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at moment, while most members of Gen Z have little or no memory of the event.
- Millennials also grew up in the shadow of the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which sharpened broader views of the parties and contributed to the intense political polarization that shapes the current political environment.
- And most Millennials were between 12 and 27 during the 2008 election, where the force of the youth vote became part of the political conversation and helped elect the first black president.
- Added to that is the fact that Millennials are the most racially and ethnically diverse adult generation in the nation's history. Yet the next generation – Generation Z – is even more diverse.



미국의 외교전략: 30년 간(1991-2020)의 단극 체제와 세 번의 위기

- 2001. 9.11테러
- 비서구 3세계의 지역 평화, 주권완성, 탈식민의 과제
- 미국은 반테러, 핵비확산, 민주주의 확산으로 대처
- 네오콘 주도의 외교전략
- 아프가니스탄, 이란, 북한 등 외교이슈
- 불완전 주권 게임 and 근대 IR 게임



미국의 외교전략: 30년 간(1991-2020)의 단극 체제와 세 번의 위기

- 2008. 경제위기
- 단극체제 하 시장논리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자본 확대
- G20 등 다자적 금융질서 개편 논의 무력화, 미국 중심 질서 잔존
- 지구적 경제격차, 미국 내 격차 및 기존 정치 비판, 정치양극화 심화
- 오바마 정부의 미온적 대처 및 현상유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로드리크(Dani Rodrik)의 비판



- 지구화의 삼중 딜레마(trilemma)
- 지구화, 국가주권, 민주화 모두를 성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는 포기하는 지경
- 첫째, 지구화와 국가주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민주화를 유지하기는 힘들게 됨.
- 국가 간에 상호의존관계가 심해지면 아무래도 국가주권의 권능이 약화
- 국가는 지구화에 따른 다양한 원칙과 규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국가 내부의 법, 원칙, 규범과 충돌. 예를 들어 지구화에 수반되는 노동 기준을 받아들이면 국내의 민주주의는 약화.
- 국내 노동 부문의 요구가 국제적 요구와 충돌하기 때문. 국가는 지구화에 직면하여 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외적으로 결정권을 유지해야 하고 국내의 다양한 요구 외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로드리크(Dani Rodrik)의 비판



- 둘째, 지구화와 민주화를 유지하려고 하면 국가의 권능이 약화
-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각 국가 내부의 불만과 조정의 요인이 발생.
- 각 국가들 내부의 요구를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적으로 조정된다면 지구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겠지만 국가의 권능은 약화될 것.
- 새로운 차원의 정치적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 국가를 넘는 지구, 지역 차원의 조정기구 필요.
- 유럽연합의 경우 각 국가들 내 국민들의 요구가 지역 차원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될 경우 국가의 주권적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로드리크(Dani Rodrik)의 비판

- 셋째, 국가주권과 민주화를 유지하려고 하면 지구화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
- 국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경제 각 부문의 결정을 하려면 지구화의 압력을 약화시켜야 하고 지구화에 대한 참여의 정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
- 실제로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국가의 국민들은 지구화의 압력에 부담을 느끼고 국가가 이를 조정해주기를 요구.
-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결국 지구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로드리크(Dani Rodrik)의 비판



- 자본주의 3.0을 향한 노력 필요
- 자본주의 1.0이 아담 스미스가 주창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실현한 자본주의였다면, 자본주의 2.0은 1차 대전 이후 케인즈주의가 확산되면서 개입주의를 실현한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가 시장 중심주의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시장 중심주의가 비정치적이라는 인식은 반대
-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신화로 정치권력이 배제된 시장 논리가 국가들과 국민들을 풍요롭게 한다는 논리에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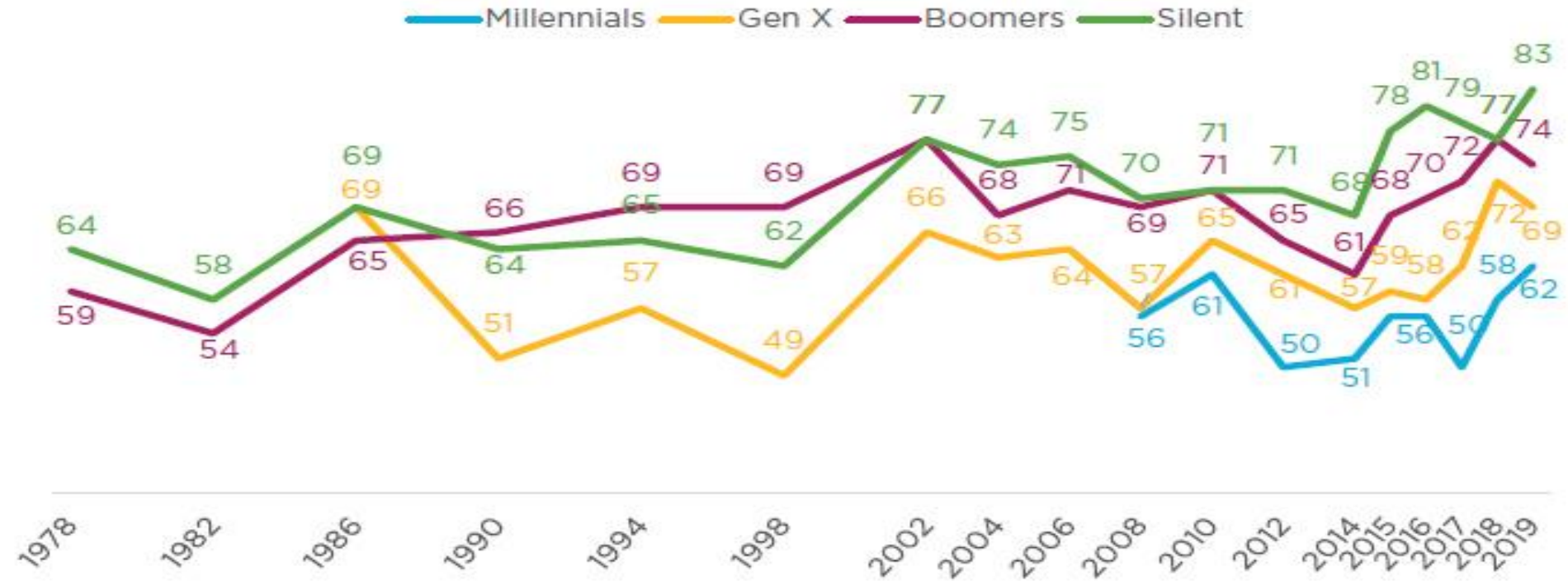
미국의 외교전략: 30년 간(1991-2020)의 단극 체제와 세 번의 위기

- 2020. 코로나 사태
- 세계화로 인한 위험의 세계화, 인간-자연 문명적 문제제기
- 다자기구 무력화, 국가별 대처, 미중 간 책임공방
- 기후변화 등 신인간안보문제 악화, 지구적 빈부 문제와 결합 심각화
- 미중 전략 경쟁이 패권경쟁으로 변화되는 양상

밀레니얼 세대의 고립주의 지향

Active Role in World Affairs

Do you think it will be best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 if we take an active part in world affairs or if we stay out of world affairs? (% active r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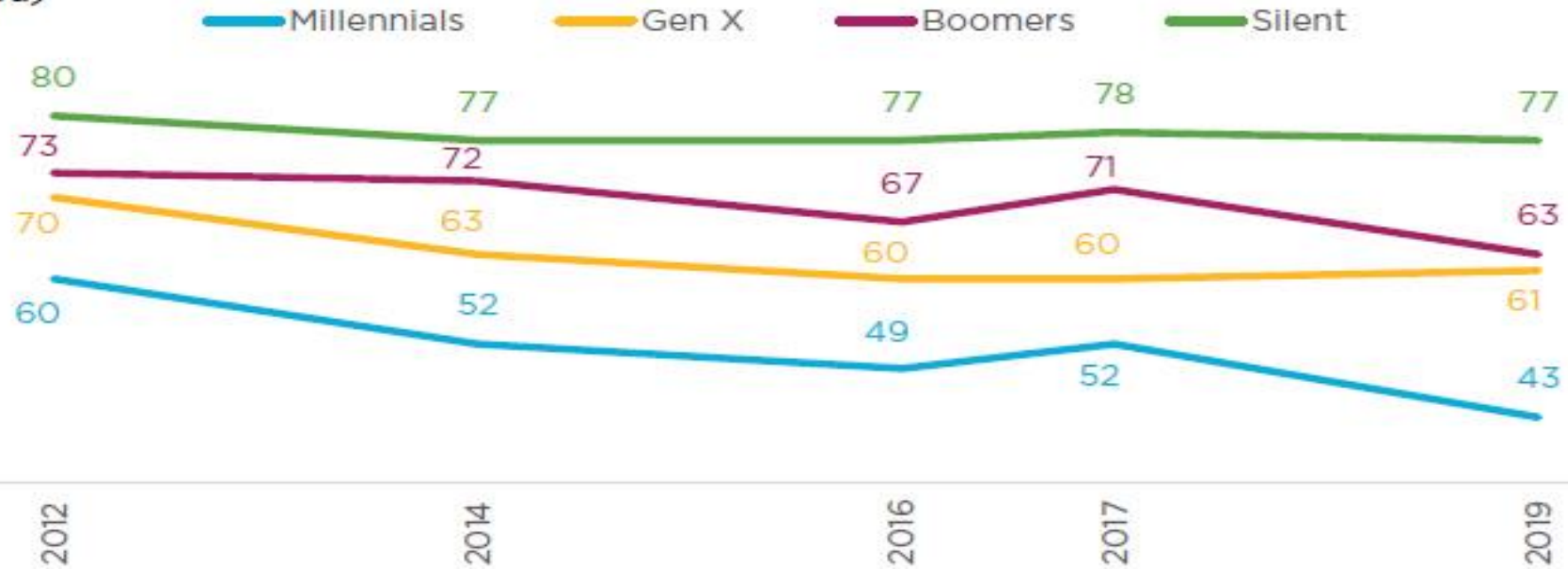
June 7-20, 2019 | n = 1,970

CHICAGO COUNCIL

미국은 위대한 국가인가? 세대별 인식

Greatest Country by Generation

Some people say the United States has a unique character that makes it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Others say that every country is unique, and the United States is no greater than other nations. Which view is closer to your own? (%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June 7-20, 2019 | n = 1,970

CHICAGO COUNCIL SURVE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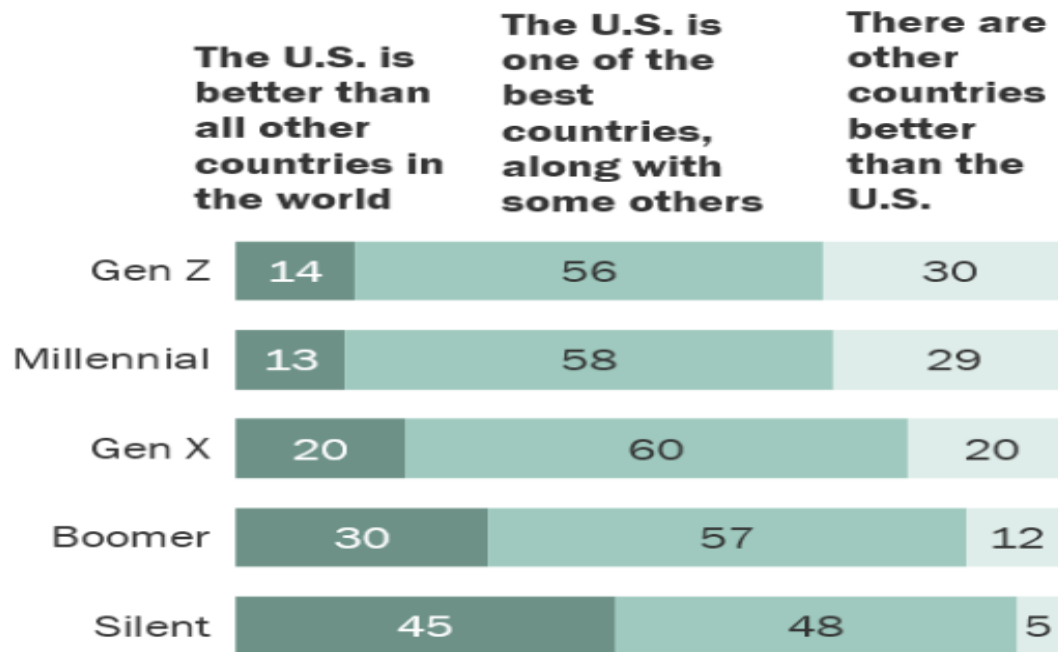
Generation Z Looks a Lot Like Millennials on Key Social and Political Issues



About three-in-ten Gen Zers, Millennials say there are other countries that are better than the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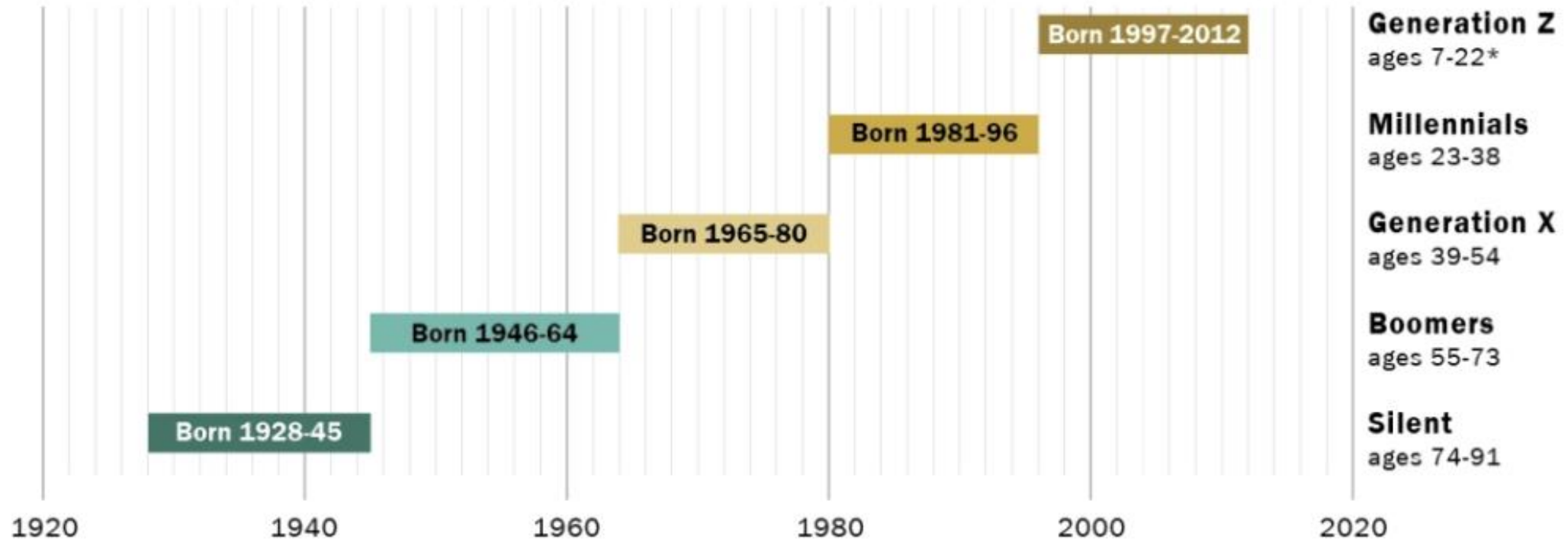
About three-in-ten Gen Zers, Millennials say there are other countries that are better than the U.S.

% saying ...



The generations defined

GENERATION AGE
IN 2019



*No chronological endpoint has been set for this group. For this analysis, Generation Z is defined as those ages 7 to 22 in 2019.

PEW RESEARCH CENTER

미국 내 세대구분



- The **Silent** Generation is the demographic cohort following the Greatest Generation and preceding the baby boomers. The cohort is defined as individuals born between 1928 and 1945. *The children who grew up during this time worked very hard and kept quiet. It was commonly understood that children should be seen and not heard.*
- **Baby Boomers**: Baby boomers were born between 1944 and 1964. They're current between 56-76 years old (76 million in U.S.)
- **Gen X**: Gen X was born between 1965 - 1979 and are currently between 41-55 years old (82 million people in U.S.)
- **Gen Y**: Gen Y, or Millennials, were born between 1980 and 1996.
- **Gen Z**: Gen Z were born between 1997 and 2012.

단극체제 하 미국 외교대전략의 한계

- 현재 미국의 대중 전략 구도: **신냉전론자** vs. 트럼프 vs. 전략적 관여 vs. 협력론
- 신냉전론의 대두: 7월 23일 폼페이오 장관 연설: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 중국에 대한 이념적 접근, 과거 대중 관여론의 실패, 미중 협력의 문제점, 세계의 양대진영화 및 대중 봉쇄
- 냉전의 기원과 비교해볼 필요
- 현실주의적 대응의 쇠퇴
- 9.11 테러 이후 민주주의 확산론, 네오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실패



미국 외교대전략의 이슈들

- 코로나 극복 및 미국 보건체제
- 미국 경제성장을 회복. 하반기 구제 금융의 한계
- 정치 양극화
- 신자유주의 사회 분열: 빈부 격차, 인종 분규
- 미중 전략 경쟁
- 다자주의 및 동맹 복원
- 북한, 이란, 테러 등 안보 문제 해결
- 기후변화, 환경, 난민, 인권 등 신안보 이슈
- “바이든 정부 ” 에 기대를 걸 수 있는가: 공화당 주도 외교정책 실패에 대한 뒷처리에 머무르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오바마 시대로의 old normal은 바람직한가?



미국의 현재 지위와 패권을 둘러싼 이론들



패권의 개념

- 패권의 구성요소: 물질적 힘 + 리더십
- 현대적 어원: 19세기 초 이태리 공산주의자 그람시의 사용
- 아시아의 개념: 왕도와 패도
- 패권과 단극(unipolarity)의 차이점
- 이론적 갈래: 현실주의, 자유주의, 신그람시주의, 구성주의, 영국국제사회학파
- 패권의 존재와 군사질서, 경제질서, 이념질서의 관계가 중요

패권안정이론

- 패권의 존재와 국제경제질서의 상관관계를 연결하여 논의
- 패권의 존재와 국제안보, 경제질서는 사실 밀접한 관계
- Charles Kindleberger,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1973)
- 킨들버거에 의하면 대공황 이전의 국제경제가 안정적일 수 있었던 것과 대공황의 확산이 차단되지 못한 것의 차이는 국제경제를 관리하는 리더십의 존재 여부
- 일차대전 이전의 국제경제가 수 차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월등한 경제력을 지닌 영국이 리더십의 역할
- 대공황기에 영국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이 쇠퇴했고, 이러한 능력을 지녔던 미국은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의도를 결여
- 국제경제의 위기를 관리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대공황이 심화• 확산되었다는 것
- 자유무역질서는 이론적으로 구성국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공공재의 성격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적 패권 성립

- 유럽에서 나토의 결성(1949)
- 동아시아에서 바퀴살체제의 동맹 구조 형성(1951년부터 시작)
- 동남아에서 동남아조약기구(SEATO) 결성(1954)
- 호주, 뉴질랜드와 ANZUS 결성(1951)
- 국제연합에서 상임이사국의 지위 강화
- 핵독점기(1945-1949)를 거쳐 소련에 대해 압도적 핵우위 유지
- 핵비확산체제 등 다양한 안보 분야 국제제도의 운영
- 해외 기지 건설 및 해외 무력 개입
- 국민들의 패권적 대전략에 대한 지속적 지지 확보

모델스키의
장주기 패권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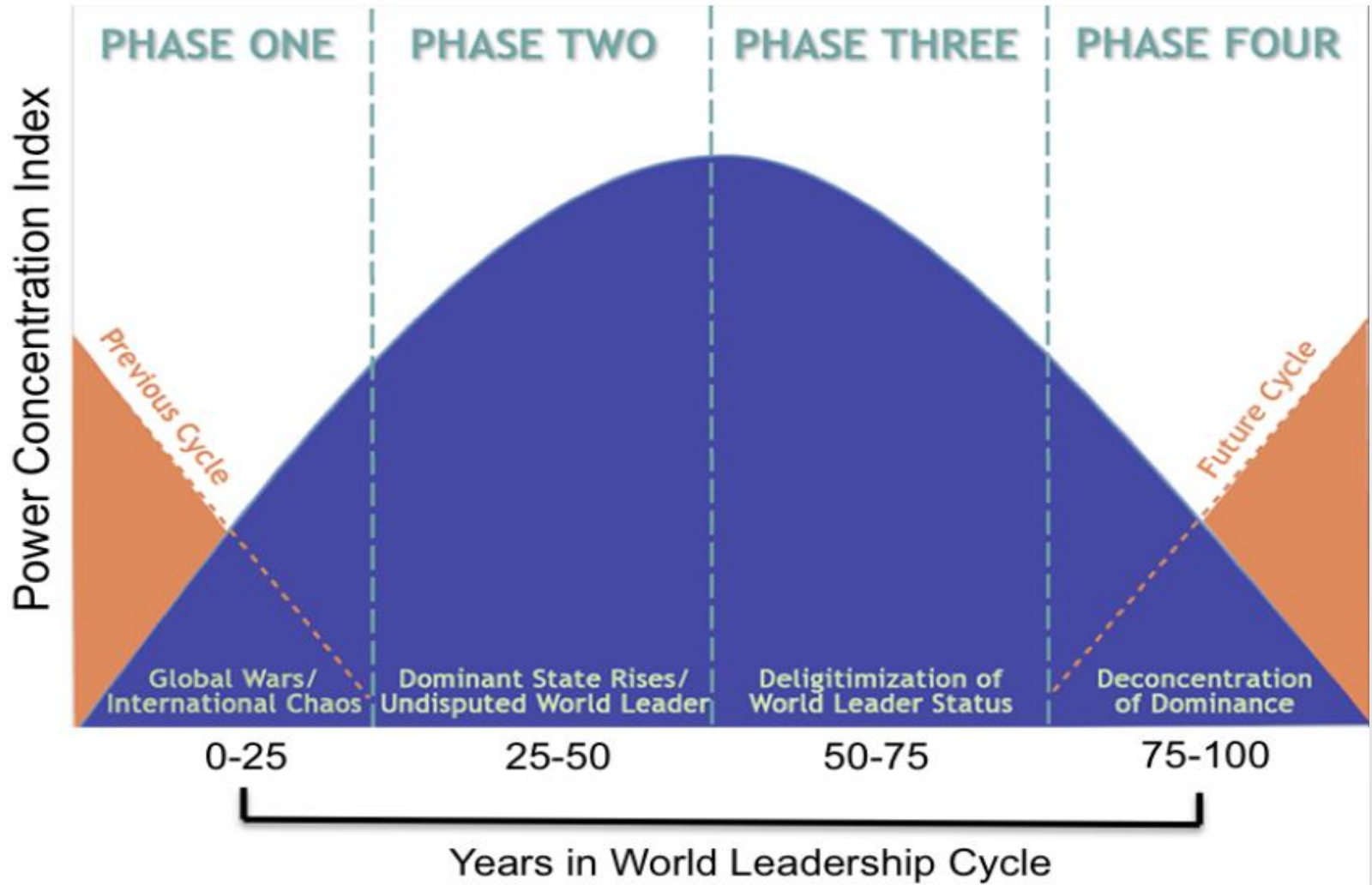


Figure 7.1. Modelski's World Leadership Cycle



현재 미국 패권의 단계: 정당성 약화

- 미국의 패권은 모델스키 장주기 이론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정당성 약화 (delegitimation) 단계를 거쳐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기존의 행정부들과 달리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해온 미국 주도 질서를 약화시키는 외교정책을 추구.
- 미국 우선주의와 위대한 미국 재건을 내걸고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요소들을 부정하는 수사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미국의 리더십 정당성을 크게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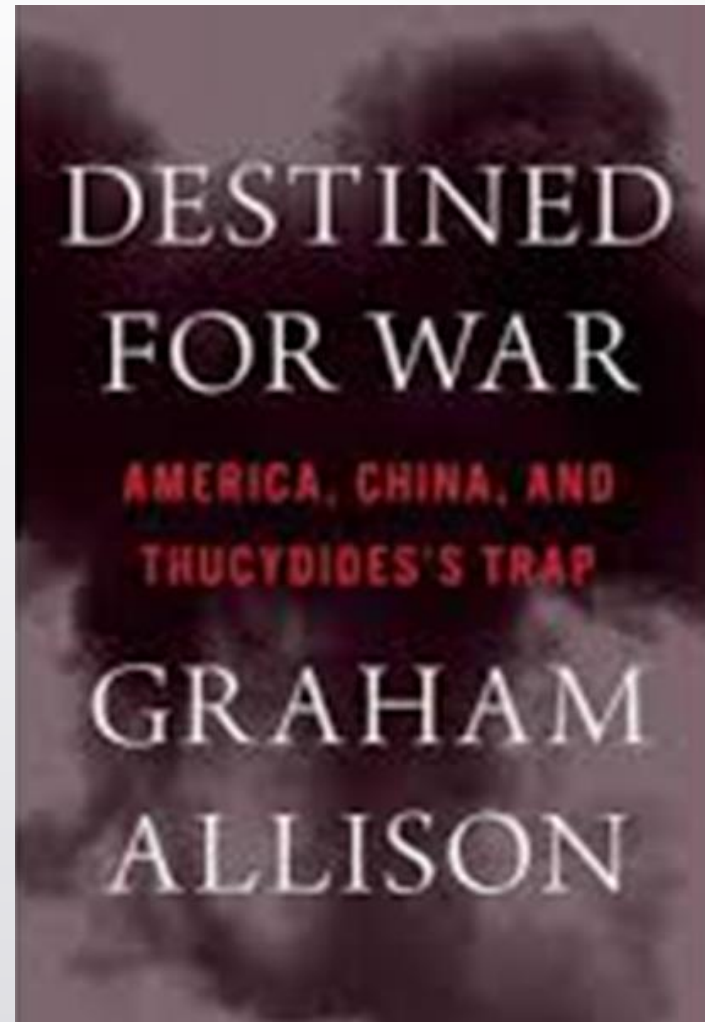
탈집중화 단계

- 정당성 약화 단계를 지나 탈집중화 단계에 도달하면 패권의 지도력이 현격히 약화되고 패권에 대한 균형 전략이 보다 현실화됨.
- 더 나아가 패권에 대한 도전과 세력전이가 시도될 가능성이 높는데, 향후 중국이 미국의 정당성 약화 전략에 이어 패권도전 전략을 추구할지가 관건임.
- 중국의 도전이 within the order 저항에서 beyond the order 전략으로 바뀌는 시점이 도래할 가능성

패권의 일방주의

- 패권의 분류: 시혜적(benevolent) hegemony, 약탈적(predatory) hegemony
- 패권의 일방주의적 재조정: 시혜적 패권의 한계에 달했을 때,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 혹은 희생을 강요. 대표적인 것이 1985년 플라자 합의
 -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 경제선진국(프랑스, 서독, 일본, 미국, 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들의 모임에서 발표된 환율에 관한 합의
-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본질에 해당(Carl Schmitt)의 논의와 연관
 - 전재성, 『주권과 국제정치』 (2019), 8장 메타주권 개념.

미국의
대중 전략





세력전이 과정에서 전쟁

- 세력균형론과의 차이
-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구조적 조건
- 첫째는 세력균등(power parity): 지배국가의 세력대비 도전국가의 세력이 80% 이상, 120% 이하
- 두 번째 조건은 추월(overtake): 지배국가의 세력을 앞지르는 것

만족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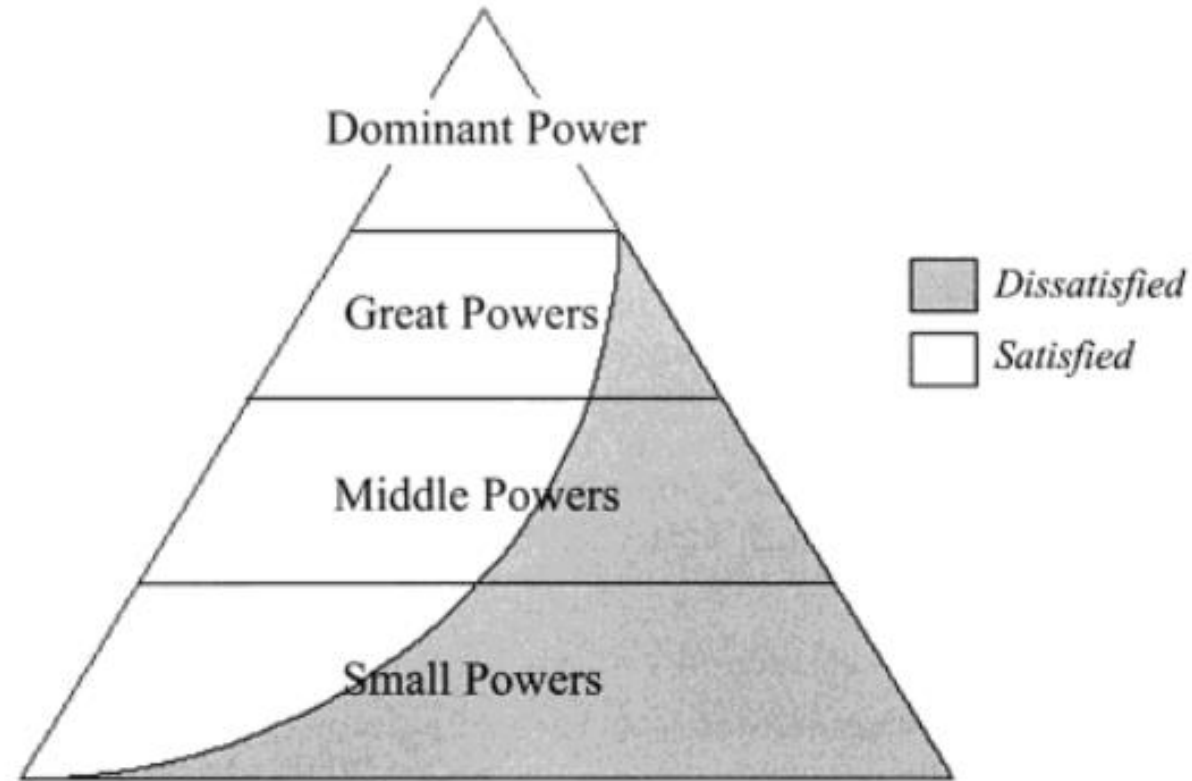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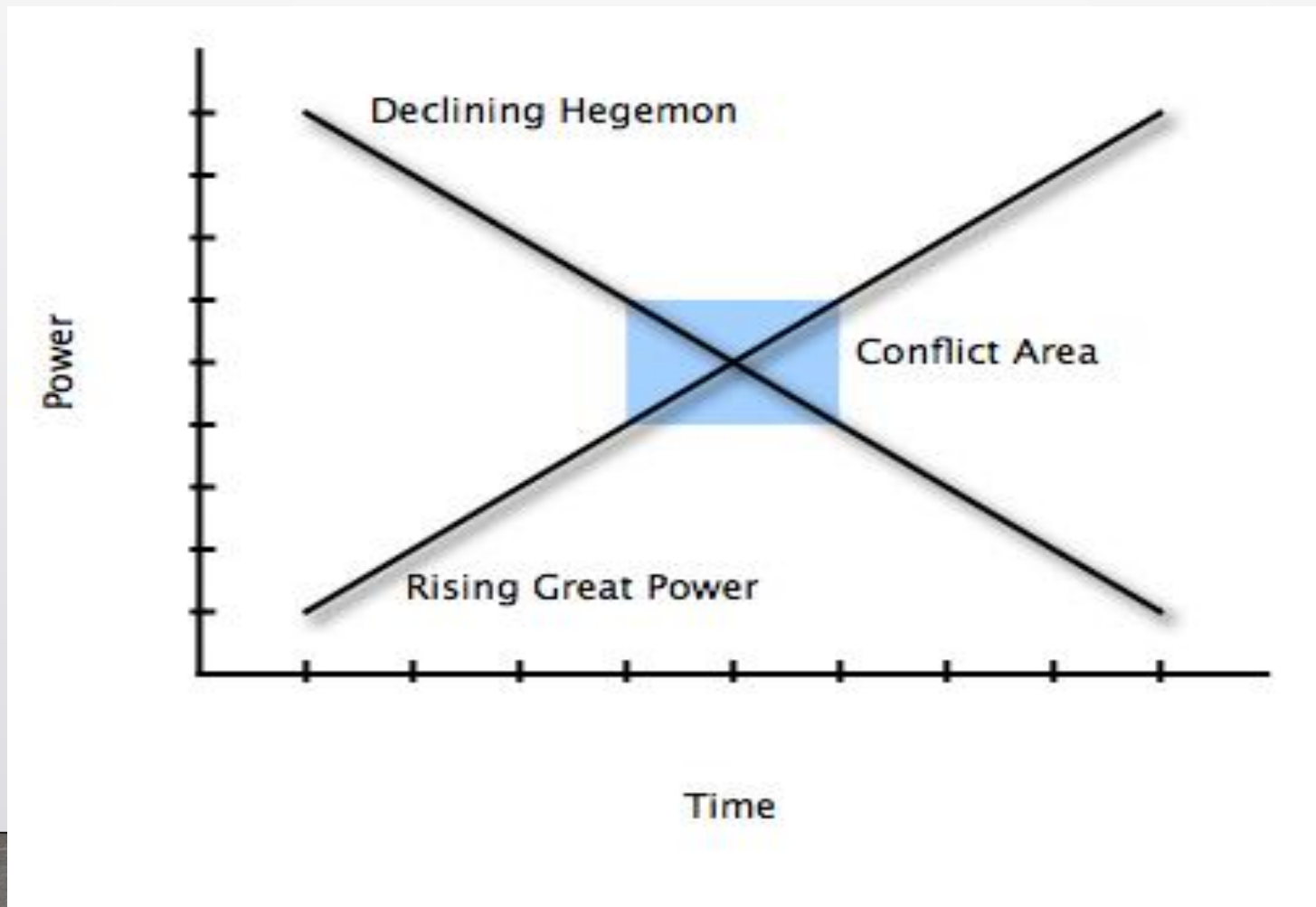


Figure 1.3 Distribution of Satisfaction

Power transition and hegemonic war





기존 강대국의 선제 공격에 의한 전쟁

- 도전국의 추월이 명백할 경우
- 도전국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경우
- 기존 패권국이 군사력이 월등할 경우
- 도전국과의 잦은 충돌이 많이 일어날 경우

- Dale C. Copeland, *The Origins of Major War*.

세력전이와 패권국의 전략

〈표 1〉 대응의 목적과 대응전략, 대응정책 분류

대응국의 전략적 목적	대응의 주요 전략	대응의 정책 다양화
부상자체의 좌절	예방전쟁	공격적 동맹정책, 공격적 다자정책, 위협/강압 정책
부상속도의 지연	균형 및 봉쇄전략	봉쇄/균형적 동맹정책, 위협/강압정책, 봉쇄/균형적 다자정책, 봉쇄형 약화유도 및 방관 정책, 봉쇄형 책임전가 정책, 봉쇄와 균형을 위한 엄격한 현안별 지지정책
부상과정과 결과에 관여, 적응	관여전략	편승적 동맹정책, 편승적 다자정책, 부상국에 대한 결속정책, 중립선언정책, 현안별 지지정책, 유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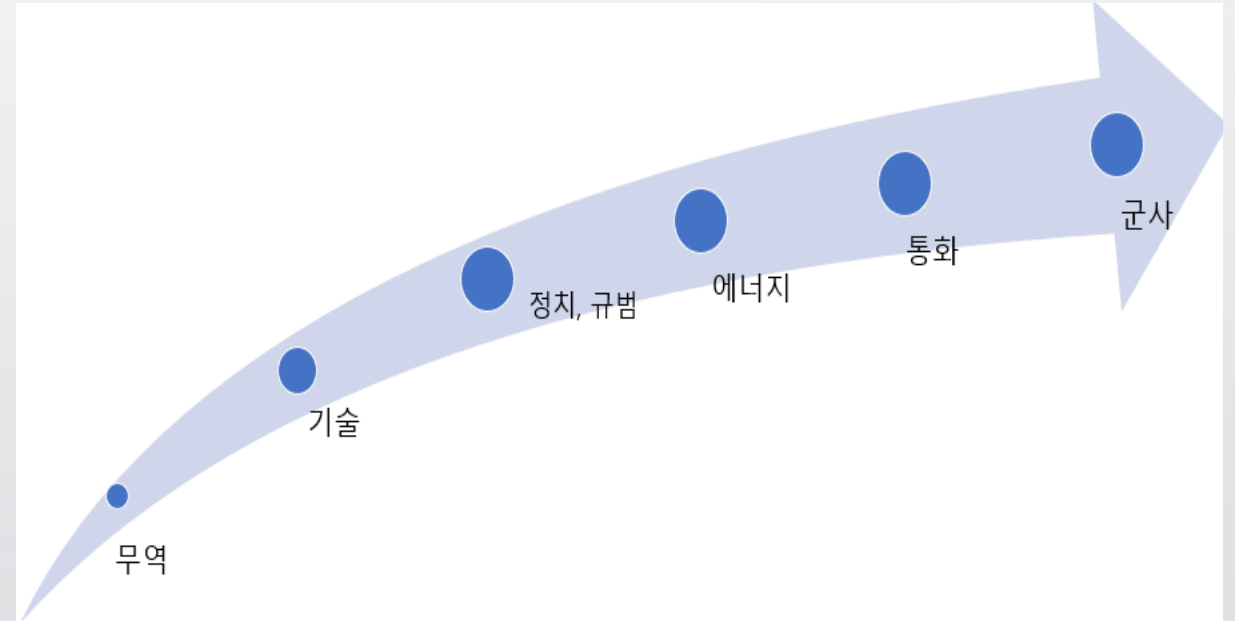
미국 내 대중 전략의 담론 지형

	중국 부상 좌절	현실적 공존	전략 협력
핵심 내용	21세기 초 부시행정부 네오콘의 대중 견제전략에 이어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전면 압박 전략	중국의 부상을 인정한 상태에서 중국 정권의 성격에 불개입, 중국과 현실적 타협, 협력과 경쟁의 공존 주장	중국에 대한 기존의 관여 전략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판단, 지속적인 대중 관여가 미중 협력을 보장할 것이라는 주장
주창 그룹	네오콘, 트럼프 정부 주요 인사	현실주의, 경제부문	자유주의
정책 내용	대중 무역, 기술 분쟁 심화, 금융, 에너지 부문으로 확대, 대중 군사력 증강 및 상쇄/다영역 작전 현실화	미국의 동맹 강화, 무역, 기술 분야에서 현실적 타협, 미국 주도 질서의 현실적 기반 강화, 지구적 문제에 서 협력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재강화, WTO 등 국제기구 활성화, 동맹 강화, 중국에 대한 지속적 협력 및 관여, 인권외교 강화

미국의 대중 전략 추이

- 미국의 **패권 기반**--능력, 의지, 국내적 지지 및 통합, 국제적 인정-- 약화
- 미중 간 국력 **격차 감소** 및 미국의 **선제적 대중 견제 전략**
- 대중 전략의 궁극적 목적 형성중?
 1. 중국의 부상 **좌절**
 2. 미국과 **국력격차 유지/확대**, 중국의 **강대국화 용인**
 3. 중국의 변화 및 **미중 양강협력체제 수립**

-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 및 상승



코로나 사태와 미중 대결

- 미중 대결의 **진영화**: 양자 대결은 부문별 진영 및 아키텍처 대결로 변화
- Resource power -> **network power**
- **경제, 이념, 안보** 영역의 대결구도
- 무역네트워크를 넘어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같은 경제진영 형성
- **인도태평양 vs. 일대일로**의 안보화, 대중 동맹체제 개편
- 진영 경쟁에서 이익과 **정당성** 확보 경쟁
- 미국이 진영구축에서 1) 명확한 명분; 2) 정확한 비전과 목표; 3) 중국의 보복방지 체계 확립; 4) 보복 시 보상 시스템이 중요



미중 전쟁? 시나리오 by RAND

- Chinese harassment to press its territorial claims in (and to) the **South China Sea**—against the Philippines or Vietnam, for example—in the face of U.S. insistence on peaceful dispute resolution and freedom of the seas
- Sino-Japanese skirmishing over disputed territory in the **East China Sea**, where the United States has said its defense treaty with Japan applies
- uncoordinated military interventions by Chinese, South Korean, or U.S. forces in the event of a collapse of **North Korea**
- Chinese threat or use of force to intimidate or seize **Taiwan**
- an incident at sea, such as the downing of an aircraft, owing to forces operating in close proximity, perhaps in **EEZ waters** claimed as sovereign by China but as commons by the United States.

War Scenario



	Brief	Long
Mild	<p>Premise: Leaders restrict hostilities and quickly agree to end conflict.</p> <p>Descrip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Hostilities are triggered by incident or miscalculation, possibly involving a third party.• Political leaders take immediate and tight control of operations, communicate directly, withhold authority for major attacks on opposing forces, and agree to end conflict with no change in the status quo.• Hostilities end within a week or so.	<p>Premise: Leaders restrict hostilities but do not agree to end conflict.</p> <p>Descrip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is is an extension of the brief, mild case.• Political control keeps hostilities limited.• Forces of both sides are augmented and operate in close proximity. Incidents and losses are sporadic but continue.• Leaders communicate but cannot agree on terms to end fighting.• Low-grade conflict is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sustainable, as neither side wants to concede or to wage costly war.• Conflict persists for a year or more.

War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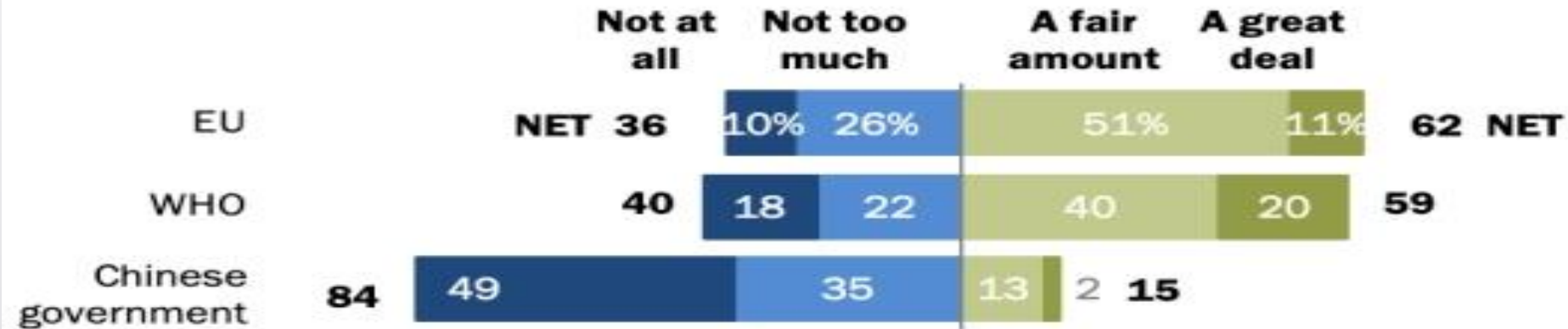
	Brief	Long
Severe	<p>Premise: War-winning logic and counterforce strategies govern from the outset.</p> <p>Descrip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kes are very important for both sides.• Crisis becomes unstable because of counterforce pressures.• Military concept of operations executed immediately by both sides. China uses kill chain to attack U.S. aircraft carriers and air bases. Simultaneously, U.S. attacks kill chain.• There are selective U.S. strikes on China.• Both sides wage selective cyberwar.• Military-operational exigencies dictate fast pace and severe intensity.• Political leaders get control only by agreeing on terms to end conflict.• Conflict lasts a week or so.	<p>Premise: Severe fighting persists per war-winning logic, absence of clear winner, deepened antagonism, and strengthened resolve.</p> <p>Descrip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aders cannot or choose not to stop.• Losses make compromise harder, not easier.• Extensive U.S. strikes on China.• Nonnuclear escalation occurs: geographically, and with respect to targets, weapons, expanded cyberwar, and ASAT.• Both sides face continued high losses.• Both sides bring more forces into action; China mobilizes for long war as losses mount.• Conflict persists for a year or more.



코로나 사태: 중국 발 정보에 대한 미국민의 불신

Few Americans trust information about the coronavirus outbreak from the Chinese government

% who trust information from the ___ in regard to the coronavirus outbreak ...



Note: No answer responses not shown.

Source: Survey of U.S. adults conducted April 29-May 5,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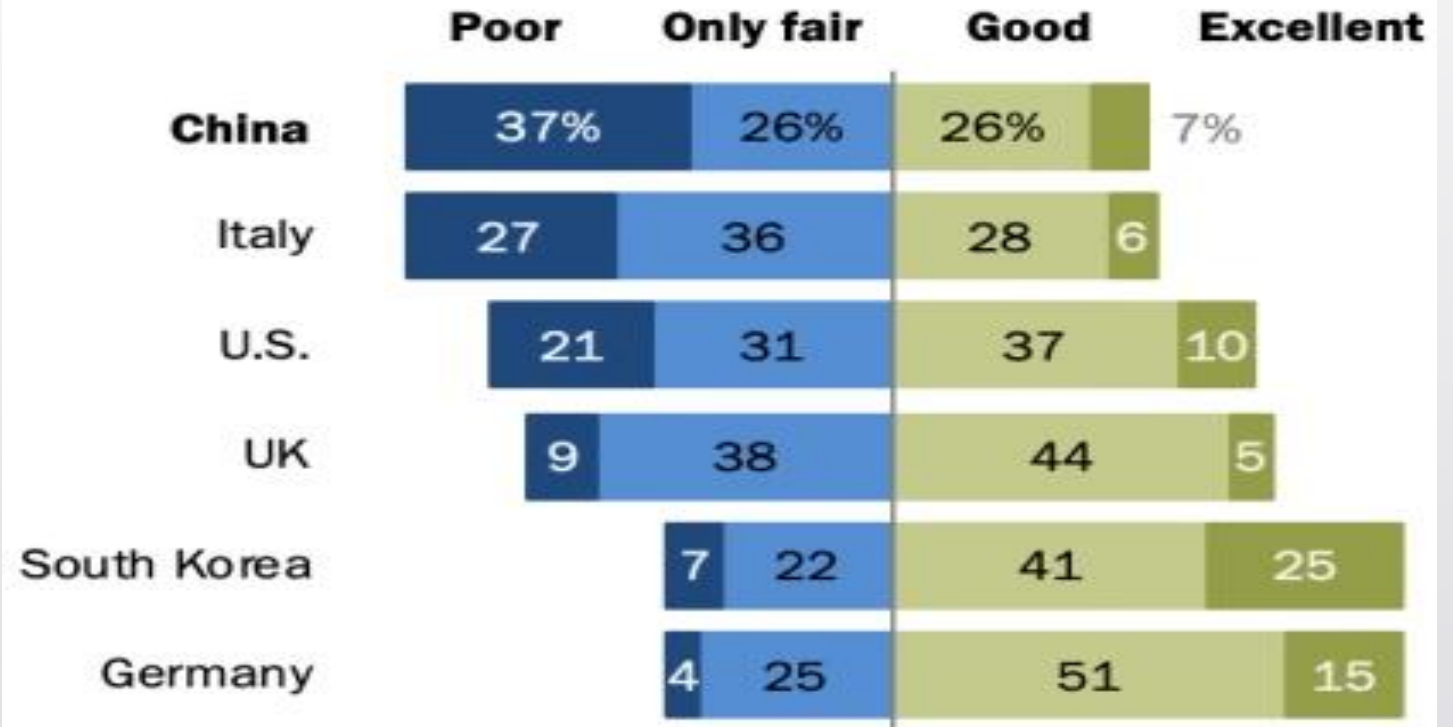
"Americans Give Higher Ratings to South Korea and Germany Than U.S. for Dealing With Coronavirus"

PEW RESEARCH CENTER

코로나 사태와
미국민의 중국 인식

Americans evaluate China's handling of COVID-19 more negatively than other countries

% who say each has done a/an ___ job of dealing with the coronavirus outbreak



Note: No answer responses not shown.

Source: Survey of U.S. adults conducted April 29-May 5, 2020.

PEW RESEARCH CENTER

코로나 사태와 미중 대결

- 코로나 사태는 대중 진영 구축의 **이념적 정당성 확보**, **대결 전선 확대**, 중국의 주권 사항에 대한 공격
- 중국의 **sovereignty obsession 강화**
- 국내적으로 대중 견제구도의 정치적 통합성 강화: **미국 기업들의 이익구도**, **정치양극화 극복 필요성**
-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 대처의 비민주성, 영향권 확대 전략 등 대중 견제구도 형성
- 기술적 우위, 군사적 압도, 동맹의 상황 등 미국 우위 여전
- 이미 존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위에 EPN, **대중 동맹네트워크** 재편
- 최근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공세, 국방전략 리뷰 등.

코로나 사태 이후 미래의 미중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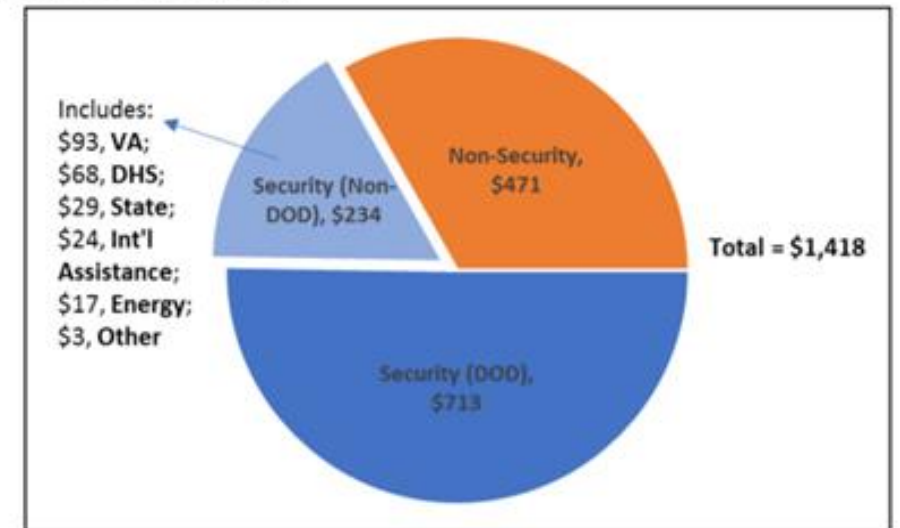
- 향후 미중 경쟁의 결정 요인
 - 미중 간 종합국력 격차, 혹은 전쟁
 - 미중의 상호인식 및 패권전략
 - 제3세력으로서 중견국들의 대응
 - 코로나 사태와 같은 미중 **공멸 위험**이 있는 공통의 위협에 대한 각성
- 차기 미행정부의 과제
 - 대중 견제 속 협력의 계기 모색
 - 중국과 **관리된 상호의존**, *recoupling*
 - 지구적 문제 인식에 대한 **인식공동체** 수립 및 **협력적 지구 거버넌스** 수립
 - 미국의 패권 기반으로서 **국내적 합의** 창출

미국의 인간안보에 대한 관심 전환

-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 미국 외교의 over-militarization 비판
- 다양한 외교적 수단에 의한 미국 외교정책 추진의 필요성

Figure 1. Discretionary Budget Authority, by Security and Nonsecurity Categories, FY2020

(in billions of dollars)



Source: CRS analysis of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Public Budget Database, Budget Authority XLSX; and OMB Final Sequestration Repor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for Fiscal Year 2012, p. 3.

코로나 사태 이후 미래의 세계: 미국에게 거는 기대?

- 패권 경쟁이 아닌 **패권불가능**의 시대: 코로나 사태와 **국제적 공공재 수요폭증** 문제
- 21세기 패권의 임무
 1. 안보 부문 규범 제시 및 **지구적 안보공공재** 제공, **동맹**의 새로운 협력 모델 제시.
 2. **경제적 세계화**의 적절한 통제 및 다자주의 강화
 3. 국가의 통제력 강화와 민주성 확대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제시
 4. **3세계 주권문제**의 해결
 5. 공통의 **지구적 인간안보** 문제 해결의 **다자주의적** 리더십

외교정책의 차이

The 2020 Candidates on Foreign Policy

Our guide to the presidential candidates
and their positions on global issues.




*This project was made possible in part by a grant
from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Last Updated: April 6, 2020


COMPARE POSITIONS





중국

- [Donald J. Trump \(R - Incumbent\)](#)
 - Trump has sought to confront China over what he says is a suite of economic abuses: intellectual property theft, currency manipulation, export subsidies, and economic espionage. He says aggressive action is required to protect American workers and to reduce the United States' large bilateral trade deficit, and that the coronavirus crisis demonstrates the need to hold China accountable.
- [Joe Biden \(D\)](#)
 - Biden has framed China's rise as a "serious challenge," criticizing its "abusive" trade practices, warning that it may pull ahead of the United States in new technologies, and criticizing its human rights record. **However, he says Trump's confrontational approach is counterproductive, alienating allies that should be recruited in a broad front to pressure Beijing.**



기후, 에너지

- [Donald J. Trump \(R - Incumbent\)](#)
- Trump has repeatedly questioned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expressing doubts about whether human activity is responsible. He has advocated for expanded domestic fossil fuel production and has pushed for rolling back environmental regulations implemented by his predecessors.
- [Joe Biden \(D\)](#)
- Biden says climate change is “indisputable” and “the greatest threat to our security,” calling for a “revolution” to address it. He has released a national plan to **reduce emissions and invest in new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As a senator, he expressed alarm over greenhouse gases, but also supported controversial energy sources such as fracking and so-called clean coal.



국방

- [Donald J. Trump \(R - Incumbent\)](#)
- Trump has championed the military, pushing for increases to defense spending, major new weapons programs, and a new branch focused on space. He has also promised to wind down U.S. troop commitments in Afghanistan and the Middle East while focusing on “great-power competition” with China and others.
- [Joe Biden \(D\)](#)
- Biden has supported some U.S. military interventions abroad and opposed others. He has often advocated for **narrow objectives in the use of force**, and he has expressed skepticism over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reshape foreign societies. He is wary of unilateral effort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diplomacy and working through alliances and global institutions**.



중동

- [Donald J. Trump \(R - Incumbent\)](#)
- Trump's approach to the Middle East has been defined by strong support for Israel, Saudi Arabia, and Egypt, and a more confrontational stance toward Iran. He promises to bring what he calls the "endless wars" in the region to a close and withdraw U.S. troops.
- [Joe Biden \(D\)](#)
- Both as a senator and as vice president, Biden has been deeply engaged in shaping U.S. **diplomacy and military policy across the Middle East**. As a candidate, he is running on his experience dealing with Iraq, Israel, Syria, Iran, and others in the region.



북한

- [Donald J. Trump \(R - Incumbent\)](#)
- Trump has devoted significant attention to North Korea, launching unprecedented direct negotiations with the country's leader, Kim Jong-un, in an attempt to persuade him to end his nuclear program.
- [Joe Biden \(D\)](#)
- Biden supports **diplomacy with Pyongyang**, but says that Trump's talks with Kim Jong-un have been **unsuccessful and potentially counterproductive, serving only to "legitimize a dictator."**



러시아

- [Donald J. Trump \(R - Incumbent\)](#)
- Trump has cultivated cordial relations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dismissed accusations that his campaign cooperated with Moscow's interference in the 2016 U.S. election. He has argued for closer cooperation with Russia while also bending to congressional pressure to extend sanctions on Moscow, expanding military aid to Ukraine, and withdrawing from a major U.S.-Russia arms control treaty.
- [Joe Biden \(D\)](#)
- Biden warns that Russia under President Vladimir Putin is “**assaulting the foundations of Western democracy**” by seeking to weaken NATO, divide the European Union, and undermine the U.S. electoral system. He also warns of Russia using Western financial institutions to launder billions of dollars, money he says is then used to influence politicians.




무역

- [Donald J. Trump \(R - Incumbent\)](#)
- Throughout his presidency, Trump has taken aim at a global trading system that he argues is rigged against U.S. interests and responsible for large trade deficits, declining U.S. manufacturing, and the offshoring of American jobs.
- [Joe Biden \(D\)](#)
- Biden has been a longtime supporter of **trade liberalization** and a critic of Trump's tariffs, arguing that Washington should take the lead on **creating global trade rules and lowering barriers to commerce worldwide**. However, he is also critical of some aspects of trade.



미국의 차기 정부

- 외교정책보다 대내 정책 및 경제정책에 몰두할 가능성이 매우 큼.
- 향후 미국 선거는 코로나, 경제, 그리고 양극화된 미국의 이념지형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 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 속에서 코로나 대처로 차기 행정부의 처음 정치행정력이 상당부분 소진될 것.
- 이어 코로나 이후 미국 경제를 재건할 방향에 대한 논의,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명확해 진 미국 내 경제 양극화, 보건 체제의 문제점, 정치협력 체제의 문제점 등 다양한 국내 문제가 제기될 것임.
- 부분적으로 대외정책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지만 주로 중국과의 경쟁에 대한 논의가 주축을 이룰 것이며 단기적인 위협 대응에 치중할 것으로 보여 외교문제에 대한 미국의 중장기 리더십이 유지될 것인가의 문제 제기
- 동맹에 대한 강조 강화. 한미동맹의 대중 견제 동맹화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가능성.



최근 CNAS의 보고서: Rising to the China Challenge. 2019.12.

1. The U.S. government should approach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as an urgent priority.
2. U.S. strategy must be both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across multiple domains.
3. Strengthening America's own competitiveness is vital to realiz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4. The United States must compete with and for allies and partners.
5.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roactive in building regional order in the Indo-Pacific, establishing new rules, norms, and institutions.
6. There is no easy way out of the China challenge.



한반도

- 북한 문제에서 바이든 정부 등장 시 트럼프 변수로 인한 북미 협상의 계기는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
- 바이든 정부는 상황에 따라 핵동결 협상을 취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북 경제 제재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점진적 압박과 외교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정부는 국내 문제 안정 시 북한과의 전략적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인 한반도 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명확한 전망을 가지기는 어려움.
- 전략적 인내로 복귀는 어려운 조건들: 북핵 능력 증가, 한국 내 진보정부, 트럼프 정부 하 북미 관계 개선 추구의 여파, 미중 관계 악화 등.



한국의 대응 원칙

- 미중 전략 경쟁은 이제 시작에 접어들고 있으며, 향후 전개는 다변하므로 과거 역사에 비추어 해석해서는 안됨. 역사의 과잉, 이론의 과잉을 경계.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
- 미중 전략경쟁은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하고 있으며 제3국, 한국 역시 일정한 손실을 피하기 어려움. 손실의 최소화 및 국내 부담과 고통의 배분에 주의해야 함.
-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한쪽 편을 드는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를 자초하는 일을 경계해야 함. 이를 위해 선제적, 원칙적 대응이 필요.
- 미중이 제시하는 대결의 playbook을 예측하고 사전에 원칙적 입장 제시 및 사안별 유연 대응이 중요함.



한국의 대응 원칙

- 국내 보수-진보의 이념적 구도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의미 있는 정책 대결구도가 될 수 없음. 친미-친중, 대북 강경-대북 유화의 구도 역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음.
- 미중 내부의 다양한 분파, 변화 양상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세력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전술적 노력이 필요.
- 북핵 문제 및 북한 문제는 핵심 사안이지만 이미 국제문제이므로 외교와 대북 정책 간의 균형 유지가 중요.
- 네트워크 지식외교를 통한 중견국 리더십 확보와 현실적인 군사력, 경제력 제고 노력을 동시에 추구.
- 한국 내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 준비

THANK YOU

A close-up photograph of the words "THANK YOU" spelled out using ten light-colored wooden blocks. The blocks are arranged in a single row on a rustic wooden shelf. The background is a soft, out-of-focus green, suggesting an outdoor setting with foliage. The lighting is natural and bright, highlighting the texture of the wood.